

청문회 이틀째도 공방...“인신공격” vs “낙마 불가피”

국힘,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사퇴 촉구
‘겹치기 월급’ 권오을 후보자도 정조준
민주 “비방 일관” 자료·증인 놓고 고성
전진숙 “당리당락 발목잡기 단호 대처”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에도 자질과 역량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장관 및 국제정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도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대립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03-2004년 같은 기간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며 “홍길동의 분신술이 아니고서는 전국 너댓곳 업체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대표로 있던 네이버와 관련,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야는 임광형 국제정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질의 경청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국제정 차장을 지냈던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의 영업이 전관예우로 급성장한 것으로 의심되나 임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충실히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

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방어막을 쳤다.

여야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단기사병 출신인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경력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국방장관 후보자는 장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고롭게 대

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국가 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한다”고 말했다.

“하남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 2년간 방치”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박수기 “기준치 46배 ↑ 긴급재난 수준”
市 “관리·책임 광산구...대책 마련 최선”
광산구청장 “적극 대응하지 못해” 사과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 보다 수백배 초과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광산구 등 관리 당국이 이를 2년 넘게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사진)은 15일 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하남산업단지 지하수에서 신장암 및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1급 발



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각각 최대 46배, 284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시와 광산구는 이미 2022년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이 2년 넘게 침묵하며 광주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발암물질의 지하수 오염은 인접 주거지역인 수완지구 생활용수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2년 넘게 이를 방치한 행정은 무능과 고의적인 침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지하수 흐름으로 보면 오염물질은 하남산단에서 수완지구와 풍영정전 방면

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주거지 내 생활용 관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TCE·PCE가 검출된 상황”이라며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 재난 수준의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광주시는 2019년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용역을 진행한 만큼 하남산단 및 인접 지역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2020-2023년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정밀 조사에서도 TCE, PCE가 지속 검출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하수 측정·관리 등 모든 권한 주체는 ‘광산구’라며 책임 소재를 자치구로 돌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자원 관리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지하수는 생활밀착형 자원으로 간주돼 대부분 자치구에서 관리한다”며 “권한이 구청에 있기에 이번 사안은 광산구에서 조치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지하수 오염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위급성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광주시도 자치구와 함께 단기·장기적 구제 실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알리는 데도 소홀했다”며 “하남산단 근무 노동자와 인근에 사는 시민들께 걱정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조속히 TF를 구성해 오염 확산을 막고 정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중점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수완지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18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안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이국근 기자

광주시 공공건축가 50명 공모

광주시는 창의적 건축도시 실현과 도시 품격 향상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제4기 공공건축가’ 50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개선 사업에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참여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는 2019년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37기의 공공건축가 100명이 민간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제4기 공공건축가는 건축, 도시,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위촉될 예정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 간이다.

응모 자격은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재직자 등이다. 신진 건축가와 공인된 건축 관련 수상 실적 보유자는 우대한다. /변은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